

전 남

해남 유기산 공급 안돼 김생산 차질

본격적인 김 생산시기를 맞고 있지만 갯벌과 파래 제거 등에 사용하는 유기산이 아직도 공급되지 않고 있어 해남 김양식 어민들의 원성이 높다. 19일 해남군 화산면 김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김양식 어장 일부에서 이미 갯벌이 발색한데다 파래부착과 김 초기생육 부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기산 사용이 시급하다. 김 유기산은 지난 1995년부터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해 국·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5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내 24개 어촌계, 700여 김양식 어가에 3천83여드럼(1드럼 200ℓ)의 김 유기산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업체 “공급가격 너무 낮다” 석달째 재계약 거부 갯벌·파래 제거 등 사용 시급... 어민 발만 동동

그러나 해남군의 단일한 행정 때문에 유기산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어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처럼 유기산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9월 전남도가 김 유기산 공급가격이 부풀려졌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적용하자, 해남군이 5개 김 유기산 제조업체에 따라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5개 업체 모두가 재계약을 체결해야 유기산이 공급될 수 있다"고 손을 놓았다. 이에 대해 생산어민들은 "군이 업

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바람에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유기산 정책이 어민을 위한다는 것인데, 업체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뒤늦게 지난 17일에서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약체결을 종용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기산 성분검사를 마친 뒤 4개 업체가 12월초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7개면 24개 어촌계 1천240여가가 7천680ha에서 1천200만속의 김 생산하고 있다.

업체 “공급가격 너무 낮다” 석달째 재계약 거부
갯벌·파래 제거 등 사용 시급... 어민 발만 동동
/해남=박희석기자 dia@

■따뜻한 이웃사랑, 아름다운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 동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중순) 임직원과 (사)농가주부모임광주 시연합회(회장 김춘자) 회원들이 19일 광주시 남구청 주차장 농협 직거래장에서 700포기의 배추로 김장을 담고 있다. 이날 버무러진 김치는 광주관내 다문화가족과 불우이웃시설 등에 전달됐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전교생 70명 여수 신풍초교

‘대한민국 인재상’ 2년 연속 3명 배출

전교생이 70여 명에 불과한 여수의 작은 시골초등학교가 2년 연속 모두 3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해 화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 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전남지역에서는 김진화(순천대 자연과학대학 2년), 박지원(순천대 원예식물학부 1년·사진), 문예원(순천 현충고 3년), 김세림(순천 매산여고 2년) 등 4명의 여학생이 선정됐다. 이중 순천대생 김양과 박양은 둘 다 여수 신풍초등학교 출신으로 52회와 53회 선·후배 사이다. 지난해는 이 학교 49회 졸업생으로 올해 순천대를 졸업하고 가



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이영중(19) 군이 수상했다. 조청현 신풍초교 교장은 “두 여학생은 초등학교 재학당시에도 공부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아주 모범적이었는데 대학에 가서도 자기 능력을 크게 발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우수 인재들을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생 60명, 대학생 4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ia@

해남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바꿨다

특위 구성 117건 정비

해남군의회(의장 김창환)는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117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해남군에서 제정해 운영 중인 자치법규의 내용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 개정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법을 전문가 초빙 연수,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폈다. 군의회는 활동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폐지안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난 2일부터 10일간 열린 ‘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례정비 결과를 보면 신규 제정 4

건, 전부 개정 4건, 일부 개정 93건, 폐지 16건 등 모두 117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 46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36건, 권리 규제 7건, 기타 28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효과적 운영 중인 자치법규의 내용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대상도 미리 선정하도록 했다. 김창환 군의회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합리한 조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고흥군 가축방역 최우수

고흥군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가축방역시책 분야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율 100%, 전곡 평균대비 농장감염률 최상위, 폐지열병 발생률 0%, 항체양성률 95% 이상,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 처분실적 100%, 닭 뉴캐슬병 미발생, 예방접종 실시율 95% 이

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실적 등 평가시책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가축방역사업,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64개 공동방제단 운영,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수립 및 운영, 도지사직 가축무로 순회진료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라며 “청정 고흥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주자중기자 gjju@

구례 무농약 ‘오분도쌀’ 호주에 첫 수출

구례에서 생산된 친환경 무농약인 중 ‘오분도쌀’(사진)이 태평양을 건너 호주에 첫 수출했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남도 우수농수산물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제 품 관매를 위해 설립한 남도미향 주식회사(대표 김도출)와 구례 중앙도정공장(대표 김성수)이 지난날 31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연간 계약물량 24t 가운데 11월 적재물량 2t을 가 공해 지난 17일 첫 수출길에 올랐다. 현미와 백미의 중간 형태인 ‘오분

도미’는 현미가 가지고 있는 쌀눈의 영양소를 유지하면서도 백미와 같은 식미감을 가져 건강식을 새삼들 각광받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포장재를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등 무농약인증쌀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hk826@

광양소방서 ‘119 아름다운 가게’

쓰지않는 물품 700점 기증 판매

광양소방서가 ‘119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 광양소방서는 19일 광양시 중동 ‘아름다운 가게’에서 소방서 전직원과 광양시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은 전기오븐, 스티프 청소기 등 71종 701점을 기증·판매했다. 이 가운데 소화기 30여 개는 1시간만에 판매가 완료되는 등 호응이 높았다. (사진) 이날 수익금 전액은 광양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담 배추를 풀뿌리 단체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의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해 판매하고 운영 수익은 이웃 돕기



광양소방서와 함께하는 119 아름다운 가게. 이날 수익금 전액은 광양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담 배추를 풀뿌리 단체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의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해 판매하고 운영 수익은 이웃 돕기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Km (주)국민법률경매					박영진이사 ☎ 0621367-3005 H.P 011-642-2640									
지역	소재지	면적/연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연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연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연면적	감평가	최저가
전남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광안구	광안구	105/2	195/2	195/2	